

■ 막오른 한·EU FTA 협상 대장정

농업, 유가공 제품·주류 개방 진통 클 듯

7일부터 대장정에 돌입하는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한미FTA에 못지 않은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과는 달리 비교적 순조로운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곳곳에 복병이 많아 타결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대 수혜 자동차... 체결엔 수출 붓물 한미 FTA 못지 않은 기대효과 예상

◇1년내 끝나다=양국은 11월까지 진행되는 1차 협상에서 추진일정, 양허안 교환시기 등 협상의 기본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며 상품이나 서비스·투자 등에서는 실질적인 협상도 벌일 예정이다. 한미 협상일정은 다소 유동적이지만 일단 2차 협상은 7월16~20일, 3차 협상은 9월17~21일 각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뒤 4차 협상을 다시 서

울에서 열기로 양국 협상단이 의견접근을 본 상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올해안에 5~6회의 협상을 열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쟁점=일단 양국은 공산품의 경우 최대한 단기간에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추진하는 등 상품무역의 자유화 뿐 아니라 서비스·정부조달·지적재산권 등 전분야를 포함하는

■ 한·EU FTA 협상 예상 쟁점

분야	EU 요구사항	한국 요구사항
상품	-자동차 표준 및 환경기준 등 비관세 장벽 완화 -기능성 화장품 승인절차 및 의약품 약가상정 투명성 제고 -기계·화학 관세 조기철폐	-자동차·전기·전자·섬유·의류 관세 조기철폐 -교역과 관련된 환경규제 및 인증 예외 요구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서비스	-유통·운송·특송·통신·금융·법률·회계 시장 개방 확대	-해운·통신·시청각자서비스 개방 확대 -외국인 취업규칙 개조·규제 완화 -금융기관 인직될 거주요건 개선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농산물	-돼지고기 위스키·와인 시장 개방 확대 -육류 수출직업장 사전등록 방식 인정 -검역 관련 지역화 원칙 -예외 인정	-리먼 등 가공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예외 인정
기타	-지재권 보호 집행강화 -지리적표시제 보호 협의 강화	-EU 회원국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관세 장벽 개선

FTA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산품의 경우 EU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감품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부담은 덜하지만, 버터나 치즈 등 유가공 제품과 와인·위스키 등 주류를 비롯해 일부는 역시 개방요구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WHÉE) 등 EU의 환경규제로 인한 교역장장애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정부는 이런 업체의 불만이나 요구를 FTA협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 EU수출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자동차 기술과 환경표준을 EU측이 자국에 유리하게 고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는데 10%나 되는 EU의 자동차 수입관세를 허물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EU의 요구를 묵살할 수만은 없어 고민이다. 그럼에도 자동차 분야는 최대 수혜 분야로 꼽히고 있다.

한편 2005년 EU 회원국(25개국)의 국내 총생산은 13조5천억달러로, 12조5천억달러인 미국보다 1조달러가 많다.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794억달러로, 전체 교역의 12.5%를 차지하면서 중국(1천181억달러)에 이어 2위였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규모는 405억달러로 단연 1위다. 무엇보다 EU는 평균 실행관세율이 4.2%로 미국(3.7%)·일본(3.1%)보다 높아 FTA 체결에 따른 가시적인 혜택이 크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은 10%로 미국(2.5%)·일본(0%)보다 월등히 높고, TV 등 영상기기도 14%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0~5%인 미국보다 높다. 지난해 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EU FTA 공청회에서 김홍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양측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단계적으로 2.02%, 장기적으로 3.08% 증가하고 고용도 30만~59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소비심리 회복세

소비자 태도지수, 전분기보다 3.9P 상승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소비심리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체감경기의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가 6일 발표한 '2007년 2·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2·4분기 중 소비자태도지수는 48.5로 전분기 대비 3.9포인트 높아져 2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아직 기준치(50)에는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연구소는 최근 소비심리가 미국경제의 연착륙, 북핵 관련 6차회담에서의 합의 도출,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자태도지수가 오른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경기판단지수와 미래경기에

상지수가 크게 상승한 때문이다. 2·4분기 현재경기판단지수는 36.2로 전분기에 비해 5.6포인트 상승, 2006년 1·4분기 이후 5분기만에 상승세를 보여 체감경기의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래경기에상지수도 54.0으로 전분기에 비해 7.0포인트 상승했다. 현재와 비교한 1년후의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31.1%는 정치사회 안정을, 29.8%는 막연한 기대감을 근거로 들었으며 수출호조는 19.7%, 물가안정은 9.3%, 투자호조는 4.4% 순이었다. 한편 2·4분기중 소비자들의 체감 생활향상을 보여주는 현재생활향상지수는 전분기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한 47.2를 기록, 3분기 연속 상승했지만 기준치(50)보다는 낮았다. /연합뉴스



광주국세청 납세 홍보 광주시방국세청(청장 정병춘) 직원들이 지난 5일 제 9회 '함평리비대축제'가 열리고 있는 축제현장에서 홈택스 현장가입, 현금영수증카드 발급 등 서비스와 함께 납세 홍보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방국세청 제공>

장려서비스업체 소비자 피해 급증

공정위, 25개 업체 직권조사

장려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업체들이 최근 회원들로부터 불일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호업체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호업체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7월부터 2주간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원에 상담이 많이 접수되거나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업체 등 총 25개 업체가 조사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행위,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시 청약철폐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토지 20%만 확보해도

민간·공공 공동사업 가능

7월부터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택지개발을 위해 해당지역 토지의 20%만 확보해도 민간-공공 공동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공동사업을 위한 최소면적은 도시지역 1만㎡, 비도시지역 3만㎡이며 공동사업을 할 경우 최소 30%는 공공택지로 활용된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의가 끝나면 대로 입법에 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맞춰 민간-공공 공동사업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절차 간소화, 택지전매 금지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키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개정안은 공동사업을 위한 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은 1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으로 정했다. /연합뉴스

소비재 판매 증가율 5년만에 최고

1분기, 작년보다 7.2% 늘어

소비재 판매 증가율이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에 따른 과소비로 카드대란이 발생했던 2002년 말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소비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소비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판매는 5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소비재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늘어났다. 이런 증가율은 2002년 4.4분기의 7.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재 중 내구재 판매의 증가율은 17.0%로 2002년 1·4분기의 23.6% 이후 최고였고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의 판매

증가율은 6.2%로 지난해 2·4분기 6.7% 이후 가장 높았으며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의 판매 증가율은 2.4%에 그쳤다. 내구재 가운데 승용차 판매는 지난해 1·4분기보다 9.8% 늘었고 가전·가구·통신기기는 22.0% 증가했으며 기타내구재의 세부 품목별 판매 증감률은 의복·신발·가방 7.6%, 운동·오락용품 21.1%, 기타 준내구재 -3.9% 등이었고 비내구재에서는 음식료품·담배(6.0%), 의약품·화장품(4.9%), 연료(0.1%), 서적·문구(11.6%) 등의 판매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4월의 소비관련 속보지표는 소비의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경총, 기업 312곳 조사

기업인사·노무담당자들은 대졸 신입사원들의 업무능력을 평균 'C'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사원에게 업무능력을 고려한 적정 임금보다 연간 312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312곳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졸 신입사원 업무능력 평가조사'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대졸 신입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대졸 신입사원 업무능력은 'C' 수준

적정 임금 보다 年 312만원 더 받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응답자의 48.5%는 C학점에 해당하는 '70~79점'을 매겼고, 이어 35.0%는 80~89점, 12.7%는 60~69점으로 평가했다. 업무능력을 고려한 대졸 신입의 적정 임금수준은 월 평균 161만4천원(연봉 1천936만8천원)으로 집계됐으나 실제 지급되는 임금은 187만4천원(연봉 2천248만8천원)이어서 연간 312만원(16.1%)의 격차가 났다. 경총은 "이런 격차는 연봉기준으로 비제조업이 417만16천원, 제조업은 249만6천원이었다"면서 "이는 산업간 신입사원의 업무능력 등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금융·통신 등 비제조업이 제조업 임금수준보다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미감일	연락처
동부화재순천지점	동부화재 영업소장 채용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5/11	061-729-2003
서원(계곡점)	분야별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3	062-951-0081
우림엔지니어링	자금출납 및 회계업무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5/15	062-228-0222
우신기공사	판매 및 관리직 남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15	062-525-3515
우포테크놀로지	헬프데스크 운영 및 경력업무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5/15	062-972-7119
신영외교로	매장 판매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18	062-223-2103
삼기이산업	기술영업 관련 기계관련전자 모직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5/18	062-954-0303
화인테크	인테리어 시공 관리기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5/18	062-521-4567
한진실업	진공성형 및 조립생산 보충역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18	062-953-4702
케이넷	신입/경력 개발자 채용 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8	062-952-1291
인재시텍	연구용 분석기기 기술직 모집	대졸/경력무관	1800~2000	05/25	062-384-6711
변지유 뷰티	변지유를 이끌어갈 디자이너 및 판매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5	062-222-7205
삼성엔터	이벤트/파트 타임 판매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5	062-234-5111
엘포시스	기술 개발부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25	062-970-3512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존경받는 기업인 1위 이견희 회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소비자, 산업계 간부 등 8천991명을 상대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을 조사한 결과,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사진)이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대상 그룹별로는 산업계 간부들의 경우 1위 이견희 회장, 2위 안철수 안철수연구소이사사회 의장, 3위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4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5위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들이 꼽은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은 이견희 회장, 정몽구 회장, 구본무 회장, 차중근 유한양행 사장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23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05 10 19 31 44 45	27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088,365,900	9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85,923,624	19
3	5개 숫자 일치 1,288,516	1,267
4	4개 숫자 일치 55,051	59,311
5	3개 숫자 일치 5,000	970,465

팝콘복권 (제54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4조 347153
2	5억	4조 347152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15825
5	1만	각조 005
6	2천	각조 42
7	1천	각조 99
		각조 4
		각조 0